

감사하는 가족 <시편 112:1~6>

올해도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남은 한해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친히 인도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가족을 아름답게 묘사하였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1.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이 땅에서 지키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경외'의 문자적인 의미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조건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느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씁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어 주고, 이 땅에서도 영원에 잇댄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후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한 시인은 이제 그 복이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받을 복은 강성하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자가 되어 그의 계명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리하면 부요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가정, 그 후손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해줄까요? 결국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죽으면 우리의 이름도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새겨진 우리의 이름도 영원할 것입니다.

2024년 지금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정 안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이웃에게도 전하여짐으로 이 땅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추석 명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2
0
2
4

추석 가정예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한 추석이 되세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5:13]



2024 추석 가정예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추석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다 같이

-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 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가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 시 교 독 ----- 106번 감사절(2) ----- 다 같이

인도자 :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가 족 :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흠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인도자 :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가 족 :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인도자 :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가 족 :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불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인도자 :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이다
가 족 :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인도자 :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가 족 :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같이 : 여호와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성 경 말 씀 ----- 시편 112:1~6 ----- 설 교 자

- 1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2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 3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여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다
- 4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 5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 6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여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설 교 ----- 감사하는 가족 ----- 설 교 자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 다 같이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주 기도 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한 추석이 되세요